

인공사진폐액으로부터 용매추출에 의한 은 회수 거동 및 실제 폐액에의 적용 양상

이 선화·김 동수·이 화영*

이화여자대학교 환경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금속공정연구센터

Recovery of Silver from Artificial Waste Photo-Developing Solution and Its Application to the Actual Wastes

Sun-Wha Lee·Dong-Su Kim·Hwa-Young Le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Ewha Womans University

*Metals Processing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 서 론

Ag는 전기 및 열의 양도체이고, 가공성과 기계적 성질이 좋은 금속재료로서 그 활용범위가 높아 다양한 산업에서 원료로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Ag를 함유한 폐기물의 발생량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도금폐수, 폐필름, 폐페인트 등 고형 혹은 액상형태로 존재하는 함은 폐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진폐액이다. 국내 사진·출판·인쇄업소는 18,635 개소이며, 폐수 발생량은 5,131 m³/day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폐수에 함유된 Ag 농도는 사진 현상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0~1000 mg/L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연간 방출되는 Ag 량을 산출해 보면 약 1500 ton이 된다.

함은 폐수의 Ag 농도가 0.4~1.0 mg/L일 경우 쥐는 신장과 간장, 비장에 이상을 유발하며 0.17 µg/L 정도의 저농도일 경우에도 어류에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량의 Ag가 회수 및 처리 없이 자연 수계에 배출된다면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종 금속을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값이 급등함에 따라 Ag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이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진폐액으로부터의 Ag 회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인 비철제련 공정에 근거한 금속의 회수법은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습식법의 경우 수용액 상태에서 처리를 할 수 있어 반응온도가 낮고, 에너지 소비량도 적으며, 비교적 대규모 시설이 필요치 않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진폐액으로부터 효과적으로 Ag를 회수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습식법 중 하나인 용매추출법을 적용, 그 특성을 밝혀보았다.

입수한 사진폐액과 사진폐액의 농축액을 대상으로 성분분석을 하였으며, 최적의 용매추출 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사진폐액 내의 Ag를 가장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용

매를 결정하기 위해 4종의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시험을 하였고, 선택된 용매의 효율적 추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농도 및 추출 시간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산업계의 Ag 수급 문제에 대한 대처와 사진폐액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용매 추출을 위한 교반기를 제작하였다. 제작 방식은 Chang Shin Scientific Co. 의 왕복형 진탕기의 상판을 교체하였다. 상판 규격은 710 mm × 515 mm 로 추출시 주로 사용하는 40 mL 바이알 최대 100 개 까지 동시에 교반할 수 있는 크기이다. 왕복 운동 속도는 0~250 RPM 까지 조절 가능하며, 교반 시간 조절 기능도 있다.

사진폐액 속의 Ag 를 가장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용매를 결정하기 위해 4종의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시험을 하였다. 사진폐액속에는 $\text{Na}_2\text{S}_2\text{O}_3$, NaHSO_3 , NaFeEDTA , NaBr 등이 함유되어 있어 일반적 사진폐액의 Ag 이온은 $\text{Ag}(\text{S}_2\text{O}_3)_2^{3-}$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음이온(ALIQUAT 336)이나 양이온(D2EHPA, KELEX 100) 또는 중성(또는 양쪽성 이온, TBP)의 대상 물질을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용매들을 사용하여 Ag 용매추출에 가장 적당한 추출제를 선택하였다.

용매들의 추출 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Ag Standard Solution (KANTO CHEMICAL Co., INC) 을 증류수로 희석한 조제폐액과 실폐액(사진폐액, 농축액)의 추출 시험을 시행하였다. 조제폐액의 Ag 초기농도는 100 mg/L 로 하였으며 희석제로는 Kerosene 을 사용하여 각 추출용매와 1 : 1 의 비율로 희석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기상과 조제폐수 및 실폐수를 상비 1 로 하여 왕복 운동식 교반기에서 일정시간 동안 충분히 교반한 후 정치하였다. 모든 시험은 상온(25°C) 에서 이루어 졌다. 추출이 완료된 후 수상과 유기상이 완전히 상분리 되면 수상의 용액을 채취하여 Ag 농도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사진폐액과 농축폐액을 각각 AAS 분석한 결과 사진폐액은 2000~3000 mg/L 의 Ag 가 함유되어 있으며 yellow green 색을 띠고 강한 악취를 낸다. 이에 비해 농축액은 Ag 함유량이 7000~8000 mg/L 으로 사진폐액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지만 악취는 없으며, 색은 dark brown 을 띤다. 시험에 쓰인 사진폐액의 경우 폐액내 침전물질을 다량 발견할 수 있었는데(분석 시 상등액을 취함) 그 침전물 속에 상당량의 Ag 가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농축폐액의 Ag 농도를 볼 때 약 3~4 배 가량 농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AAS 분석결과 두 시료의 Ag 함유량이 상이하여 이후 용매추출시험은 두 시료를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조제폐액의 용매별 추출효율을 나타내면 Fig. 1 과 같다. 100 mg/L Ag 수용액을 용매추출한 결과 각 용매별 추출율은 ALIQUAT 336 100%, D2EHPA 52%, KELEX 100 28% 였으며, TBP 의 경우 Ag 추출이 일어나지 않았다. 조제한 폐액의 경우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아 Ag 가 순수 이온 형태(Ag^+ :양이온) 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물질을 주로 추출하

는 TBP 으로는 Ag 가 추출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양이온 교환제인 D2EHPA 와 KELEX 100 이 약 50% 와 30% 의 추출율을 보인 반면, 음이온 교환제인 ALIQUAT 336 이 Ag 전량을 추출한 것은 예상과는 다른 결과인데 이는 ALIQUAT 336 이 음이온 교환제이지만 구조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chloride 를 가지고 있어 그 영향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Ag 추출에 가장 효과적인 추출용매는 ALIQUAT 336 인 것으로 잠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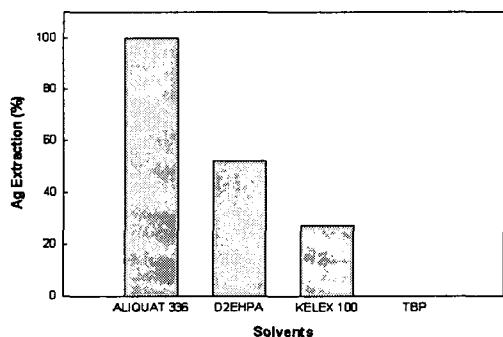


Fig.1. Effect of solvent type on the extraction efficiency of Ag in artificial wastes (Initial Ag conc. 100mg/L, 25°C, A/O=1).

사진폐액에 대한 각 용매들의 추출율은 Fig. 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제폐액 시험과 비교 했을 때 ALIQUAT 336 이 94% 로 Ag 추출효율이 가장 뛰어나다는 같은 결과를 보였고, D2EHPA 와 KELEX 100 은 추출율은 떨어졌지만 비슷한 추출경향을 나타내었다. TBP 의 경우 조제폐수에서는 추출이 되지 않았었는데 사진폐액에서는 7% 로 KELEX 100 보다 더 좋은 추출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사진폐액의 경우 Ag 가 순수 이온형태가 아닌 다른 물질들과의 결합형태로 존재하거나 용매의 Ag 추출에 있어 다른 물질들이 영향을 끼침을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Ag 가 사진폐액 속에 양이온 형태로만 존재하였다면 조제폐액에서와 같이 TBP 추출율은 0% 이어야 하지만 추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Ag^+ 와 등가인 음이온이 결합한 상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양이온 교환제인 D2EHPA 와 KELEX 100 의 추출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도 Ag 가 양이온 형태가 아닌 중성화합물로 존재하거나 다른 물질과의 결합을 통해 음이온 분자의 원소형태로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ALIQUAT 336 의 작용을 살펴보면 구조내의 chloride에 기인해 양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Ag 를 추출할 수 있고, 본래 음이온 교환제인 만큼 다른 물질과의 결합으로 음의 전하를 갖는 화합물 형태의 Ag 또한 추출 가능하다. 즉, Ag 존재 형태와 상관없이 ALIQUAT 336 이 Ag 추출에 가장 효과적인 용매임이 확인 되었다.

조제폐액의 경우 ALIQUAT 336 으로 추출하였을 때 100% 의 추출율을 보였는데 사진폐액의 경우 다소 떨어진 것은 조제폐액의 Ag 농도는 100 mg/L 로 사진폐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고(사진폐액 2000~3000 mg/L) 이것은 유기상의 농도 조절을 통해,

즉 용매의 희석정도에 따라 추출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ALIQUAT 336의 경우 사진폐액 속에 존재하는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의 Ag 화합물은 추출할 수 없어 ALIQUAT 336에 의한 사진폐액 Ag의 100% 추출이 불가능 할 것으로도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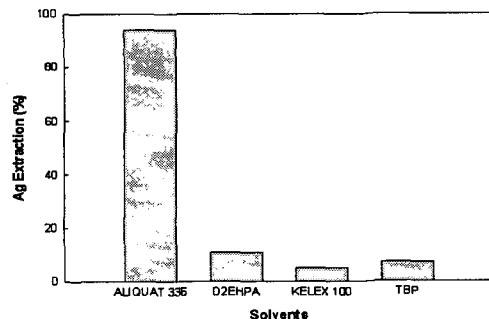


Fig. 2. Effect of solvent type on the extraction efficiency of Ag in photographic wastes (25°C , $\text{A}/\text{O}=1$).

사진폐액을 시료로 하여 유기상 농도변화와 함께 추출시간 변화에 따른 추출율은 Fig. 3과 같으며 평형 추출율은 0.2M 77%, 0.4M 90%, 0.6M 97%이다. 사진폐액의 경우 0.6M 이상의 농도에서의 결과는 0.6M과 비슷하여 그래프 상에서는 생략하였다. 이 그림에서 보면 Ag의 추출속도가 빨라 추출반응 시작 후 수분 안에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안정적인 평형 상태에 이르는 것은 대략 30분 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의 ALIQUAT 336에 의한 Ag 추출시 반응시간은 30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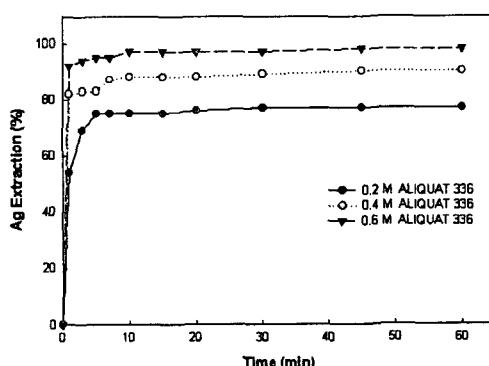


Fig. 3. Effect of time on the extraction efficiency of Ag in photographic wastes at various ALIQUAT 336 concentrations (25°C , $\text{A}/\text{O}=1$).

ALIQUAT 336 농도별 추출시간에 따른 결과는 Fig. 4와 같다. 농도별로 평형 추출율을 보면 0.2M에서 28%, 0.4M 41%, 0.6M 49%, 0.8M 67%, 1M의 경우 72%이다. 농도가 낮은 경우에서

는 차이를 보였지만 농축액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도 Ag의 추출속도는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분 후에는 모든 농도에서 안정되게 평형에 도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농축액 또한 ALIQUAT 336에 의한 Ag 추출시 반응시간은 30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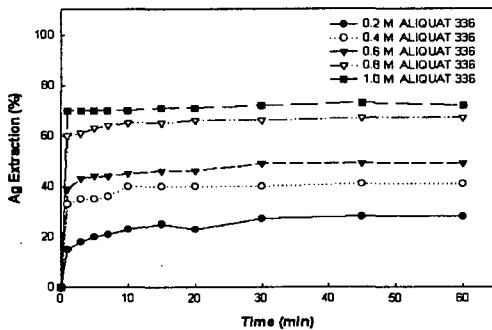


Fig. 4. Effect of time on the extraction efficiency of Ag in enriched photographic wastes at various ALIQUAT 336 concentrations (25°C, A/O=1).

사사

본 연구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1) Kumar, A., Haddad, R., Alguacil, F. J., and Sastre, A. M. : Comparative performance of non-dispersive solvent extraction using a single module and the integrated membrane process with two hollow fiber contactors, *Journal of Membrane Science*, Vol. 248, pp.1-14 (2005)
- 2) Yoshihiro, K., Jun, U., Shoichi, K. and Yasuyuki T. : Solvent extraction of silver picrate by 3m-crown-m ethers ($m=5,6$) and its mono-benzo-derivative from water into benzene or chloroform : elucidation of an extraction equilibrium using component equilibrium using component equilibrium constants, *Talanta*, Vol. 62, pp.701-706 (2004)
- 3) Hu, H. S., Yang, M. D. and Dang, J. : Treatment of strong acid dye wastewater by solvent extraction, *Separation and Purification Technology*, Vol. 42, pp.129-136 (2005)